



## ● 마틴 부씨의 생애 (III)

# 종교회의들

### 마르틴 그레샤트(Martin Greschat, 1934~)

저자는 1965년에 뮌스터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부에서 <루터 곁의 멜랑흐톤: 1528년에 서 1537년 사이의 칭의론 형성에 대한 연구>(Melanchthon neben Luther. Studien zur Gestalt der Rechtfertigungslehre zwischen 1528 und 1537)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9년까지 독일의 기쎈(Gissen)에 있는 유스투스 리비흐(Justus-Liebig) 대학교의 복음주의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레샤트가 저술한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urg)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씨에 관한 전기는 가장 최근의 전기로서 <마르틴 부씨: 종교개혁가와 그의 시대>(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e Zeit)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뮌헨(München)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2002년에 파리에서 *Martin Bucer (1491 – 1551). Un Réformateur et son temps*라는 제목의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2004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Westminster John Knox) 출판사를 통해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라는 제목의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교회사에 관한 그레샤트의 소논문과 저술은 너무 많아 여기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의 저술 목록(Schriftenverzeichnis Martin Greschat)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muenster.de](http://www.muenster.de)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의 최근 저술로는 2002년에 출판된 <복음적 기독교와 1945년 이후 독일 역사>(Die evangelische Christenheit und die deutsche Geschichte nach 1945)와 2005년에 출판된 <유럽의 개신교>(Protestantismus in Europa) 등이 있다. 그는 1981–1986년 사이에 12권으로 편집 출판된 <교회사의 인물들>(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의 편집인으로도 유명하다.

번역된 원고는 그레사트의 책 〈부서: 종교개혁자와 그의 시대〉의 ‘6장 제국의 종교개혁’ 속의 내용 일부이다. 1장은 부서가 태어나 성장한 배경을, 2장은 인문주의자 에마스무스(Erasmus)와 종교개혁가 루터(Luther)에게 부서가 받은 영향을, 3장은 스트라스부르 초기 시절을, 4장은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의 대변인이 된 부서의 도시개혁을, 5장은 개신교 연합운동의 선봉장이 된 부서의 활약상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6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의 연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직 개신교라는 교회가 로마교와 완전히 결별하기 이전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제후

쾰른 대주교의 영적인 관할구역은 그 범위가 넓었지만 그가 쾰른의 주교 선제후로서 직접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았다. 이곳은 라인(Rhine)강의 서쪽 강둑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캠펜(Kampen)에서 남쪽으로는 호더스베르흐(Godesberg)에 이르는 좁고 긴 땅으로, 그 폭이 6마일에서 40마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선제후는 여러 곳의 고립 영토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라인강의 오른 편 강둑의 린츠(Linz)와 알텐비트(Altenwied)를 비롯해서 북쪽에는 라인베르크(Rheinberg)와 남쪽에는 알텐나르(Altenahr)와 누르부르크(Nürburg) 구역 등이다. 이런 상황은 중세 말기 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선제후의 영토 안에서 외부의 고립 영토가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헨(Aachen)과 쾰른의 중요한 자유 제국 도시들이 선제후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도시들은 대주교의 영적인 관할구역에 속한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의 이 지역에서 실제적인 정치권력은 쾰른의 선제후에게 있지 않고 율리흐-클레베-베르크(Jülich-Kleve-Berg)의 공작에게 있었다. 그의 영토는 사방으로 선제후의 영토를 감싸고 있었다. 이 공국은 서쪽으로는 베르크(Berg)의 영

토를 포함하여 뮤즈(Meuse, 모제)강과 아헨 시까지 뻗어 있었고, 동쪽으로는 수스트(Soest)까지, 북쪽으로는 클레베(Kleve)까지, 그리고 헬더르란트(Gelderland)와 쥬트펜(Zutphen)을 획득한 이후에는 에이슬메이르(IJsselmeer)까지 닿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율리흐-클레베-베르크의 공작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교회의 조직이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단적이었다. “클레베의 공작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는 교황이다”(Dux Cliviae papa est in terris suis)라는 그 시대의 속담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쾰른의 대주교가 자신의 교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축소되었다.

자신의 선제후 국에 미치는 정치적 지배력도 한계가 있었다. 대주교는 지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올릴 수도 빚을 얻을 수도 없었다. 또한 영토를 담보로 잡히거나 혹은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쾰른 시의 회뿐만 아니라 성당 참사회와 대학의 관계를 다각도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쾰른의 대주교 선제후의 힘을 엄격히 제안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쾰른은 자유로운 제국 도시였기 때문에 선제후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상위 층에서 선발된 16인의 고위 성직자를 비롯해 대부분 신학자이거나 혹은 교회법의 전문가들이었던 8인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성당 참사회와 함께 통치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들 중 몇 명은 마을에서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때, 쾰른에서는 성당 참사회, 시민들 중에서 중요한 무리들, 그리고 대학과 시의회가 모두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이 명백해진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엄격히 정통성을 지킨 대학의 신학 교수들이 이 도시의 종교적인 색채를 결정하였다. 쾰른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숨 쉴 공간은 거의 없었다.

1477년생인 헤르만 폰 비트(Herman von Wied. 비트의 헤르만)는 1515년 쥬리아누스 2세의 대주교가 되었다. 비록 그가 전통적인 교회를 공고히 하는 일에 약간의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임기 초에는 제국의 다른 고위 성직자 선제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그는 교회 개혁의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은 그의 가까운 조언자 요하네스 그롭퍼(Johannes Gropper)로 인해 떼게 되었다. 이들은 1536년 시의 성당에서 소집된 쥬리아누스 2세의 지역 성당 참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참사회가 공표한 개혁의 모습을 1538년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런 일련의 시도들은 실패했고, 헤르만 폰 비트는 곧 다가올 종교적인 공의회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헤르만은 하겐나우(Hagenau)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었다.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의회의 폐막 선언에서 마음을 다해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다급히 호소하였다. 그가 학식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선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일에 자신을 도와줄 소규모의 조언자들을 모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개혁 성향의 인문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대주교 선제후가 다스리는 쥬리아누스 2세의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는데 그가 궁극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은 부처(Bucer)와 그롭퍼였다. 그는 두 사람 모두와 보름스와 레겐스부르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긴밀한 연락을 하고 지냈다.

## 종교개혁의 시도

부처와 그롭퍼는 1542년 2월 5일 헤르만 폰 비트와 본(Bonn)에서 서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코텐포르스트(Kottenforst) 지역의 그의 시낭터, 부쉬호펜(Buschhoven) 성에서 만났다. 그들은 대주교 선제후 지역을 위한 종교개혁의 도입을 의논하였다. 한 달 후 부씨는 다른 제국의 영토 특히, 대주교 선제후 지역의 지역에 빛나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의 영토 안에서 “참된 기독교적 종교개혁”을 실행하라고 재촉했다. 헤르만 폰 비트는 3월 중순 지역 의회에 그의 개혁안을 재출하였다. 7월 26일 쾰른 대학의 신학 교수들의 회의록을 기록한 서기관은 “대주교가 부씨를 스트라스부르로부터 쾰른으로 불러들여서 루터파로 개종하려한다”는 소문을 흥분하며 적었다. 부씨는 성격상 두 반대 진영 사이에서 공평하게 중재하려는 중도론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의 개혁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쾰른의 성직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씨의 비전이었다.

부씨와 그롭퍼의 우정은 이런 대립을 이겨내지 못했다. 8월 초 그롭퍼는 자신의 스트라스부르 동료에게 그들을 묶고 있는 개인적 신학적 유대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롭퍼는 자신의 진영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적대감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에 부씨의 강력한 요구는 그롭퍼를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안전한 자신의 전통적 가톨릭 진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롭퍼에 보낸 1543년 1월 2일자 편지에서 부씨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일세. 나는 프로테스탄트야. 그렇다고 내가 무모한 혁신에 집착한다는 뜻은 아닐세.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합당한 일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지.” 그 달 말, 부씨는 근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작문의 편지를 보내 그롭퍼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부씨는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부씨는 1542년 12월 14일부터 본에 체류했다. 그 당시 본의 주민은 2천명 정도였다. 소수의 어부나 사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장인이거나 소규모 상인이었다. 성 안 마을의 거주 지역은 좁았고, 넓은 채소밭과, 과수원 그리고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선제후 행정부의 본부였고 대주교 선제후가 사는 거주지였다는 점이 그 특별함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도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소수의 중요 궁정 관리와 종복이 주민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의 법은 선제후 국 관리들의 감독 하에 시민에게 제한된 자치 행정권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이목을 집중 시키는 것은 본의 북쪽에 자리 잡은 소위 쉬티프츠쉬타트(Stiftsstadt)였다. 여기에는 웅장한 대성당과, 남쪽의 레미기우스(St. Remigius) 교구 교회, 성과 같은 선제후의 궁정 등이 포함된다. 부씨가 묵었으리라 짐작되는, 이 궁정은 대략 오늘날의 본 대학이 자리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1542년 12월 23일 부씨는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는 무척이나 편안하며 선제후 국의 관리들이 상당한 양의 생선과 고기를 제공해 준다는 편지를 스트拉斯부르에 보냈다.

부씨는 12월 17일 처음으로 본 대성당에서 설교했다. 곧 그는 일주일에 세 번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12월 18일 지역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라틴어로 고린도전서를 연속해서 강의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청강생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 성경 본문 해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부씨가 매일 해야 하는 일과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상당수의 집필을 포함하여 협상과, 여행, 초안의 작성, 온갖 종류의 전문적인 의견 등을 담당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1543년 4월 말 “저는 혼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치고 모든 힘이 소진 되어버렸습니다”라며 영주 필립(Landgrave Philip)에게 불평을 털어 놓은 것도 이해할만 하였다.

1542년 12월 19일 쥬트라의 성당 참사회와 대학은 부씨의 임명에 항의하여 대주교에서 정식 항의장을 제출했다. 헤르만 폰 비트는 부씨를 브륄(Brühl)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불렀고, 그곳에서 이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가는 12월 24일부터 해가 마감 될 때까지 지냈다. 그러나 새해가 되자 부씨는 다시 본으로 돌아왔다. 1월 9일 그롭퍼는 서둘러 작성한 가톨릭교회의 개혁안을 대주교에게 제출했으나 헤르만 폰 비트와 부씨 모두 이를 거부했다. 이 본문이 현재 남아 있지 않는 것도 우연은 아닌 듯싶다.

지역의회(Landtag)가 3월 12일에서 16일까지 본에서 개최 되었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된 부씨는 의도적으로 초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뚜렷했다. 공개적인 싸움이 시작 되었다. 부씨는 이 상황에서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성당 참사회나, 신학 교수들 누구도 그와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중 연설가로써 부씨의 탁월한 능력이나 번뜩이는 재치는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글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글쓰기에서 그의 말하는 재주는 발휘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생각의 사슬을 단순화 하지 못했다. 특히 논점에 보여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이 글의 전쟁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수의 인기 있고 학식 있는 작가들이 뛰어 들어 140편에 이르는 글을 1542년 12월에서 1547년 여름까지 발표함으로써 더욱 일은 복잡하게 되어갔다. 처음으로 가톨릭 진영이 광범위하게 출판을 이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1543년 3월 부씨가 “지금 쥬트라의 주교 관구인 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 되는 것은 무엇인가?(Was im Namen des Heiligen Evangeliums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jetzt zu Bonn im Stift KÖLN gelehrt und predigt wird)"라는 제목으로 퀄른 성단 참사회에 반대하는 글을 출판하였다. 단기간 동안 이 글은 재판 인쇄를 두 번이나 하였다. 이 글 속에서 부씨는 간결하면서 아주 대중적인 문체로 자신의 신학적인 원칙을 전개해 나갔으며,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수도원의 생활, 시의 권력자들의 의무에 대해 논했다. 그런 후 신중하게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의회의 폐막 선언을 상기시키며 본에서의 자신하고 있는 활동을 변호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 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은 제거 되고 있음을 기뻐하라고 일깨우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노력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이보다 훨씬 설득력이 감소한 부씨의 두 번째 변호가 1543년 7월 말 출판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공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시의회와 퀄른 대학에 헌정했다. 이 새로운 변호는 종교개혁과 스트리스부르 시, 그리고 동료들을 비방하고 있는 에벌하르트 빌릭(Elberhard Billick)의 "심판"(Incicium)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부씨는 고해성사를 비롯해서 성인승배, 견진성사, 특히 미사와 성찬식에 대해서 논하였고, 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제자로써의 새 삶을 보는 종교개혁의 해석을 옹호하였다. 부씨는 중요한 하나의 신조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의지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온전히 위로를 얻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방어 글은 주목을 얻거나 혹은 종교개혁의 효과를 지속시키기에는 너무 길고 자세하였다. 또한 부씨와 멜랑흐톤(Melanchthon)은 "기독교적이며 참된 의로움"(Christliche und wahre

Verantwortung)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은 쥘른 대주교를 향해 쓴 짧은 글로 여기서 이 두 개혁가는 대학(특히)과 더불어 시의회가 주장한 탄원과 비방을 거부했다. 그러나 곧 헤르만 폰 비트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 종교개혁의 성립에 관한 간략한 고찰”(Einfältiges of a Bedenken, worauf eine christliche, in Worte Gottes gegründete Reformation... anzurichten sei)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선제후 국 쥘른에서의 교회 개혁을 이끌어 갈 지침을 보여 주었다.

부씨는 1543년 1월 이미 이 중요한 글의 작업에 돌입했다. 5월로 접어들어 멜랑흐톤은 본으로 왔고 교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부씨를 도왔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카스파르 헤디오(Caspar Hedio)도 한 달 후에 이 작업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 때 즈음에는 “간략한 고찰”的 주요한 내용은 이미 마무리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멜랑흐톤과 부씨가 이 책의 저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담당한 몫이 얼마인지 가려내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1533년의 브란덴부르크 누레MBERG(Brandenburg Nuremberg) 교회의 교회법이 이 글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을 자료로 삼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위에 언급된 그 분명하고 간결함이 “간략한 고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3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여섯 장으로 나누어서 두 사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신학적인 원칙과, 신앙적인 묵상, 교회법의 위상, 그리고 예배 의식의 교육 등을 흥미롭게 엮어서 제시하였다. 다시 한 번 이 책을 통해 부씨가 간략하게 적절한 교리를 전개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루터는 물론이고 스위스의 비평가들도 부씨의 이 저서들을 주저 없이 비판했는데, 비판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너무 장황하다”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계획은 분명히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의식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였다. 부씨는 가톨릭 사람들을 달래어 한발 한발 점차적으로 그들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와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각 나라 말로 예배를 거행할 것과, 신부의 결혼도 허락할 것, 그리고 성찬식에서 성찬의 잔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교회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법적인 위상도 낱낱이 비판하였다. 부씨가 진행한 방식은 많은 비평을 불러 일으켰다.

쾰른 개혁을 위한 이 문안은 7월로 접어들어 헤르만 폰 비트와 논의되었다. 대주교는 하루에 5시간씩 5일 동안 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에 특히 집중하며 내용을 검토하였다. 7월 23일 그는 이 고찰을 지역 의회에 제출하였다. 1543년 7월 26일의 의회 폐막 선언에는 대주교의 개혁 프로그램이 수용되었고 성당 참사회도 3주 이내에 동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쾰른의 제후-주교 지역에 종교 개혁의 도입을 위한 분명한 발걸음이 보여졌다.

앞서의 지역의회에는 부씨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 개혁을 향한 이런 노력들의 삶과 영혼을 되새기고 있다. 부씨는 헤르만 폰 비트에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야한다고 햇세의 필립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다. 복음주의 설교와 성찬이 이미 캠페(Kempen), 린츠(Linz), 안더르나흐(Andernach) 등과 같은 도시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은 본에 자리 잡고 있는 선제후 지역이었다. 본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모두가 떠나 텅 비었고, 과거 이곳의 수도사였던 사람 중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1539년에 생긴 스트라스부르의 새 라틴어 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일종의 프로테스탄트 학교가 본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쥬트의 대학에 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이 아직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율리히-클레베-베르크의 빌름 4세 공작이 종교개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뮌처(Münster)의 주교와, 발데크(Waldeck)의 프란츠(Franz) 등이 헤르만 폰 비트의 전철을 따르기 위해 그의 성공을 염원하였다. 선제후 국 쥬트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첫 걸음은 비록 작기는 했지만 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쥬트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개혁에 대항하는 칼 5세 황제의 정치적 전략 때문이었다. 또한 이런 프로테스탄트로의 접근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필립 영주가 중혼으로 인해 칼 5세 황제와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협약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스부르크(Habsburg) 가문의 황제는 어떤 반대도 없이, 1543년 8월 전 공국을 공포와 놀라움에 떨게 했던 잔인한 공격으로 뒤틀(Düren)의 소규모 요새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칼 황제에게 저항하기 위한 빌름 4세 공작이 프랑스 왕과 맺은 동맹은 이제 공작이 황제와 조건 없이 동맹을 맺는다는 조약으로 대치되었다. 이 사건들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 우선 칼 5세 황제는 적은 힘으로도 종교적으로나 종치적인 변화를 간단히 제압 할 정도로 자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쉬말칼트 동맹(Schmalkaldic League)이 내부적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제압하는 일이 쉽다는 것을 칼 5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사건들의 중요성이나 결과를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부씨가 그 소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543년 8월 17일 칼 5세와 그의 군대가 본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황제의 군대가 이 “루터” 지역을 어떻게 약탈하고 고의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토지와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 열흘 후 부씨는 강제로 본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필립 영주에게 단호한 어조로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얼마를 보낸 후 헛세를 경유하여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왔다. 이 편지에서 부씨는 불평하기를 최근 프로테스탄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은 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사도의 직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해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교회에 치리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잘못이 있지만 특히 시의 권력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부씨는 보았다. 부씨의 이 비판은 분명 필립 영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부씨가 본 것은 오직 싸움과 불화와 이기심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불일치뿐이었다.